

제48회 전기의 날 기념 전기설비기술기준 워크숍



제48회 전기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2013 전기설비기술기준 워크숍(4. 17 ~ 19, 강원도 평창)'이 산·학·연 관계자 6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료됐다.



환영사를 낭독하고 있는 김무영 대한전기협회 상근부회장



박상덕 산업통상자원부 R&D 전략기획단 MD가 격려사를 낭독하고 있다.



최길순 한국전기공사협회장의 축사



한·일(대한전기협회 VS 일본전기설비학회) 전기기술 협력 양해각서 체결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소개 및 추진계획
(양성배 전력거래소 팀장)



The way of the electricity engineer
(Hayashi 일본전기설비학회회장)



에너지 미래 기술
(박상덕 산업부 R&D 전략기획단 MD)

KEA FOCUS



전기설비기술기준 관련 유공자에 대한 산업
통상자원부 장관 표창이 수여되었다.



정용기 옴니엘피에서 회장에게 공로패가
수여되고 있다.



김홍인 한양K&E 대표이사(좌)와 일본전기
설비학회(회장 Hayashi)(우)가 각각 개인과
단체부문 감사패를 받았다.



총 4개 전문기술세션에서 26개 연구내용이 발표됐다.



필립스, 케이피일렉트릭 등 전력산업 전시부스를 Tour하고 있는 내외
귀빈



올해 처음으로 실시된 '전력신기술 제도개선 워크숍'에 많은 관심이
집중됐다.

● 전기협회 주관, 2013 전기설비기술기준 워크숍 성료

- 다양한 의견 교류를 통한 전기사업 효율화 도모
- 한·일 전기기술 협력 양해각서 체결

대한전기협회는 ‘제48회 전기의 날’을 기념해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사흘간 강원도 평창에 자리한 보광 휘닉스파크에서 ‘2013 전기설비기술기준 워크숍’을 개최했다.

‘공중의 안전, 전기설비의 안전!’을 주제로 열린 이번 워크숍에는 김무영 전기협회 상근부회장을 비롯해 박상덕 산업통상자원부 MD, 최길순 한국전기공사협회장, 유상봉 한국전력기술인협회장, 장세창 전기산업진흥회장 등 내빈과 산·학·연 관계자 650여명이 대거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워크숍에서는 ▲개막행사 ▲특별세션 ▲전기기술 세션 ▲발전기술 세션 ▲한국전기규정(KEC) 제정 토론회 ▲에너지 Saving기술 세미나 등이 펼쳐졌으며, 부대행사로 △풍력발전 표준화 워크숍 △신기술·신제품 전시회 △한·일 전기기술 협력 양해각서 체결 △전력신기술 워크숍 등 다양한 행사가 마련됐다.

또한, 이날 행사에서는 전력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KEPCO 유홍근 팀장 등 11명의 전력산업계 종사자들에게 산업통상자원부 표창이 수여됐으며, 정용기 유니엘피에스 회장에겐 공로패가, 김홍인 한양 K&E 대표와 일본전기설비학회(회장 Hayashi)에 감사패가 각각 전달됐다.

4월 10일 전기의 날을 기념해 마련되는 전기설비기술기준 워크숍은 국제표준의 제·개정사항, 신기술·신공법 개발, 전기안전 향상기술 등을 반영한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관련 규정을 널리 홍보하고, 전기업계 현안사항을 도출, 개선하여 전기설비의 안전 및 공중의 안전과 전기사업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다. 

